

유럽투자은행의 로드맵 발표와 기후변화 대응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시 은 (selee@kdb.co.kr)

- ◆ 유럽투자은행(EIB)은 EU의 기후은행으로서 「EIB Group Climate Bank Roadmap 2021-2025」를 발표하고, 세 가지 이행방안 및 네 가지 전략방향을 제시
 - (이행방안)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1조유로 투자 지원('21~'30년), 관련 금융지원 비중을 50% 이상으로 확대(~'25년), 파리협약의 원칙 및 목표와 일관성 유지
- ◆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지원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
 - 그린산업 지원 강화와 함께 저탄소·그린경제로의 전환시 도태되는 산업, 기업 및 관련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공정전환 방안도 고려

□ 유럽투자은행(EIB, European Investment Bank)은 '20.11월 EU의 기후은행으로서 향후 전략방향을 담은 「EIB Group Climate Bank Roadmap 2021-2025」를 발표

- EIB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했던 EU의 은행에서 'EU의 기후은행'으로 전환하고, 유럽의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(European Green Deal)을 지원
 - '19.12월 EU 집행위원회(EC)는 '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, 산업 및 순환경제, 건축, 수송, 친환경 농식품,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*을 발표
 - *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EU내 산발적으로 운용중인 여러 지원수단을 통합한 InvestEU를 통해 EIB 등 정책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자금의 매칭 투자를 유도
 - EC와 유럽 의회는 '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'30년까지 현재의 40%에서 각각 55%, 60%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EIB의 기후금융 중요성은 증가
- EIB 그룹*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자 세 가지 이행방안을 발표
 - * EIB(European Investment Bank)와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자회사인 EIF(European Investment Fund)로 구성
 - EIB 그룹은 '21~'30년중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 부문에 1조유로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
 - EIB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금융지원 비중을 '25년까지 50%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
 - '21년부터 시작되는 EIB 그룹의 모든 금융활동을 파리협약의 원칙 및 목표와 일관성 유지

□ 동 로드맵은 ①녹색금융을 통한 전환 가속화, ②모두를 위한 공정한 전환, ③파리협약과 일관된 운영, ④일관성과 책임성 구축이라는 EIB 그룹의 네 가지 전략방향을 제시

- EIB 그룹은 저탄소 가속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12개의 중점 분야를 선정
 -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진,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, 청정에너지, 지속 가능한 수송, 그린산업, 오염제거, 자연보호, 식품사슬,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, 금융시스템의 그린화, 글로벌 그린화 선도, 공정전환 등으로 구성
-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, 환경, 경제적 타격이 큰 프로젝트를 충분히 지원
 - InvestEU*의 보증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, 공공기관 투자 지원을 위한 EIB의 공공기관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
 - * EIB 그룹은 '21~'27년중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한 총 투자액의 75%를 담당할 것을 합의('19.3월)
- 파리협약의 원칙 및 목표와의 일관성 유지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융·환경·사회 지원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
 - EU의 녹색경제 분류체계(EU Taxonomy)에 근거하여 금융지원 여부를 판단 하며 기후관련 공시를 강화
 - 에너지 부문에서는 '19.11월 도입한 에너지 대출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, 신재생 에너지, 그린기술 등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우선 대출 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'21년까지 점진적으로 중단

EIB 그룹의 기후은행 로드맵의 네 가지 전략방향

전략방향	주요 내용
① 녹색금융을 통한 전환 가속화	-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12개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
②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전환	- 공정전환 메커니즘 을 통해 '21~'27년중 InvestEU, EIB, EU예산, 회원국 등으로 부터 1천억유로의 투자를 동원하여,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지원
③ 파리협약과 일관된 운영	- '21년부터 모든 신규 금융활동을 파리협약의 원칙 및 목표와 일관되게 운영하며, EU Taxonomy 기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목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지 확인
④ 일관성과 책임성 구축	- 지속가능한 금융·환경·사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, 기후관련 활동 지원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등 ⇒ EU Taxonomy 법 준수, 기후관련 공시, 환경 및 사회정책체계 준용 등

자료 : 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('20.11월), "EIB Group Climate Bank Roadmap 2021-2025"

□ EIB의 역할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

- 그린활동을 식별하는 분류체계인 Taxonomy를 정립('21.6월 예정)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
 - 한편, 저탄소·그린경제로의 전환시 타격을 입게 되는 산업 및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위한 공정전환 방안도 고려